

“나 떨고 있니”...유형업소 방문자들 좌불안석

광주 상무지구발 코로나19 비상

확진자 상당수 노래방 도우미
불특정 다수와 접촉 가능성
308명 자가격리 조치 속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고심

“저 아니고 제 친구 애건데요. 거기 노래
홀 유형주점 갔는데, 진단검사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몰라서요. 그런데 선별진료
소 가면 신분 노출 안되나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런 밀폐된 술
집에 간 거야? 사람 많이 몰리는 식당도
외식하러 안가고 ‘돌밥’(돌아서면 밥)하
느라 죽겠는데, 웬일이니 진짜.”

광주지역에 ‘유형주점’발(發) 코로나
19 주의보가 발령됐다. 유형주점을 돌아
다니는 이른바 ‘도우미’들과 동선이 겹친
손님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
더기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확진 관정을 받은 ‘도우미’가 다녀
간 유형업소와 동선 내 교집합을 갖는 손
님들 사이에서는 확진 여부 뿐 아니라 자
칫 자가 격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억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당국도 이같은 점을 파악하고 사생
할 침해와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떨고 있니”=17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역 최대 유흥가인 상
무지구 유형주점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17명으로, 이들 확진자들이 거쳐
간 유형주점만 무려 20곳에 이른다.

특히 확진자 중 상당수는 업소를 돌아
다니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알
려지면서 감염 확산에 초비상이 걸린 상
태다.

광주시는 유형주점 관련 확진자의 동선
을 파악, 지난 6일 이후 15일까지 이들 유
형주점과 동선 관련성이 있는 대상자를
993명으로 꼽았다. 유형주점 종사자, 여
성접객원, 손님, 운전기사 등을 모두 망라
한 숫자다. 물론, 정확하진 않다. 유형주
점이라는 특성상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
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들 중 확진자와 밀접 접촉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308명을 자가격리자
로 분류,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도우
미’로 불리는 여성접객원 확진자들이 불
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고 마
스크 착용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이들 확진자들은 피시방과 식당 등
을 오가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
했다. 이들과 언제, 어디서든 접촉했다면
감염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감
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익명성 보장하겠다. 검사받아라”=유
형주점 관련 코로나 진단 검사 대상자들
이 받는 심리적 부담감은 엄청나다.



광주지역 유형업소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확진자들과 이동
경로가 겹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우선, 확진 여부를 떠나 광주시와 정부
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생활 방
역 준수 및 다수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
이는 클럽 등 유흥 시설 방문 등을 자제토
록 권고해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접객원이 드나드는 유형주
점과 동선이 겹쳐 진단 검사를 받게된 데
따른 의혹의 시선까지 견뎌내야 한다. 해

당 여성들은 당장 직입까지 알려지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들 대상자들
에게 진단검사를 반드시 행장명령을 발동
한 만큼 선별진료소를 찾는 것 자체가 부
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선별진료소가 있는 자치단체에는 ‘개인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신분을 확인할

텐데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주
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도 이같은 점을 들어 광주 상무
지구 유형주점 등을 방문한 대상자를 대
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도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을 받도록 하고 익명성을 보장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00억대 사기행각 여성 사채업자 구속

부안 해수욕장서 검거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100억여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6개월 넘게 경찰 수사
망을 피해 오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50대
여성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7일 투자금 수십 억원
을 가로채고 부동산 개발 합작 법인의 공
금을 횡령한 혐의(횡령·사기 등) 등으로
50대 여성 사채업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접수된 A씨를 상대로 한 고소 3
건을 기준으로 일단 피해 금액을 60억원
대로 추산하고 있다.

고소되지 않은 건까지 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만 현재까지 경찰에 추가 고소된 건은 없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받
고 있지만, A씨와 변호인은 병행에 대한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1월 말께 고소장을 접수받
은 이후 A씨와 통화, 출석을 요구했다가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
지 않았다가 2개월이 지난 뒤인 3월 말에
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후 행적이 묘연하자 4월에 지명수배

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었지만 경찰이 A
씨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해 수사력과 수
사의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기도 했다.

경찰의 추적에도, 지난 13일 A씨는 전
북 부안의 해수욕장에서 일행들과 텐트를
치고 머물던 중 때 마침 인근 현장을 탐문
하던 경찰에 목격되면서 붙잡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부싸움 뒤 찾김 불질러

부부싸움을 한 뒤 찾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
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7일 자신이 사는 아파
트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A모
(58)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는 가재도구와 내부

(15㎡)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776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
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자신의 안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싸
움을 한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찾김에 답
배짚조를 던져 불이 옮겨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호 기자 jusbh@

5·18 유공자 새로운 연금법 발의된다

오월 3단계, 매달 지급 방식

민주당안으로 국회 제출 요구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새로운 연금법
이 발의된다.

오월 3단계(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
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
들에게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
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3단계는 “기존 5·18 유공자들에게는
1980년 노태우 정권하에서 제정된 생활
지원금과 위로금을 1990년부터 2015년까
지 7차례에 걸쳐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면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
고 보상은 것은 가해자였던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
문에 ‘유공’의 측면을 배제하고 ‘희생’에
중점을 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0세의 5·18유공자 상이 1등
급자가 80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은 총 9860만원 상당인데 반해, 동일한
수준인 상이 2등급 4·19혁명부상자는 연
금과 수당으로 총 8억 1388만원 상당을
받게 돼 9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5·
18유공자 대다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인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금도 없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현격한 보상금의 차이를 연금·수당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3단계는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개
정안을 민주당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줄 것
을 요구하고, 19일 광주를 방문하는 김종
인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개
정안의 보상금과 연금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낮 폭염, 밤 열대야

광주·전남 폭염특보

21일까지 이어질 듯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
특보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를 기
해 고흥·장흥·강진·해남·완도 등 전남 5개 군
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 발령
했다. 이로써 폭포와 진도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이
날 낮 최고기온은 지역에 따라 낮은 곳은
31.3도에서 높은 곳은 35.6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 낮 최고기온
31~33도 이르는 무더운 습한 날씨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같은 기간 여순·순
천·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 25도 이상의 열대야 현
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8일과 19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22~25, 낮 최고기온이 31~35도 정
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낮과 오후 시간
대 활동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어 20일과 21일에는 전남에 비해 낮 최고
기온이 1~2도 가량 낮을 전망이다. 체감
온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
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습도
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더욱 높
겠다”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축산업
과 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
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쌍꺼풀 수술한 원생 협박

아동보호시설 원장 벌금형

쌍꺼풀 수술을 한 보호아동을 정신병원
에 입원시키겠다며 협박한 광주의 한 아동
보호 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
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
의로 기소된 광주시 동구 A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동구 아동복
지시설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쌍꺼풀 수
술을 하고 돌아온 10대 원생을 정신병원
에 입원시키려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빼앗고 반성문·서약서 등을 작성토록 하
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윤 판사는 “정신병원 입원 치료 방법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점 등을 고려
하면 A씨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권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4.4%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대출(1인 가구, 1인 가구)
-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저소득층 대출

평생 어부바
신협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 상 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금리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